

동네책방이 만든 광주 이야기책 '특별한 북커버'

'모모는 철부지: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 (책과 생활 출간)은 1978년부터 단 3회 열렸던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에 대한 '짧고 강렬했던' 추억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최유준 교수와 프리랜서 방송작가 장상은이 공동 집필한 책 '모모는 철부지'는 전국을 강타했던 히트곡들을 소개하고, 로컬 대중문화의 '오래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난 5월 출간된 책은 최근 새 옷을 입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서양 화가 박성완의 유화 작품이 책 표지가 됐다. 다양한 색감의 투박한 터치와 두터운 질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의 나무들을 묘사한 '금남로'는 전일가요제의 산실인 '전일빌딩'이 자리한 공간을 다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노여운 작품의 북커버 한 책과 지역 작가의 그림, 그리고 지역의 동네 책방이 만났다. 광주문

화재단이 광주문화자산구축사업으로 진행한 '광주면면'을 통해서다. 저자 조정 릴레이 북토크와 라이브 생중계, 도서판매와 이벤트가 어우러진 '광주면면'은 지역문화 자산을 담은 책을 소개하고 동네서점에 대한 관심도 갖게하는 기획이다. 동네서점 파종모종 양지에 대표와 지역 4개 서점이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인상적인 건 지역 작가 작품으로 한정판 '북커버'를 제작한 점이다. 기왕 광주에 대한 책이나 광주에서 활동하는 저자들이 펴낸 책으로 북토크를 진행하는 행사라면 아예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그림으로 '특별한 북커버'를 만들어 독자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그 출발이었다. 책의 내용과 '결'이 비슷한 그림을 선정해 북커버를 제작한 책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신양호·노여운·박성완 작가 작품으로 제작 4개 서점 '광주면면' 통해 북토크 등 진행

29일 '책과 생활' 서 개최...유튜브 생중계 '모모는 철부지' 장상은 작가·주광 DJ 초청



'모모는 철부지'를 출간한 동네책방이자 출판사 '책과 생활'은 특별판에 실린 박성완 작가의 그림 '금남로'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도록 책 제목과 출판사 이름 등을 책 날개에 감춰 북커버를 디자인했다.

지난 6월 '러브애프리'에서 열렸던 첫 행사에서 소개된 책 '골키퍼의 황혼' (서정완)과 '엄마의 영어 일기' (송지혜)에는 각각 신양호 작가의 작품이 실렸다. 자유롭게 그려나갈 드로잉 작품 '라일락'과 '글로리아'는 편안함을 준다.

7월 '동네책방 숲'은 시집 '연어가 돌아오는 시간'을 펴낸 고영서 작가와의 북토크를 진행했다. 북커버로는 서양화가 노여운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사라져가는 골목길 풍경을 따스한 시각으로 담아내는 그림으로 알려진 노 작가의 작품 가운데 '영산강'을 소재로 한 그림과 시의 내용이 어우러질 것 같아 초록색 물결기가 흐르는 듯

한 작품을 북커버로 제작했다. 8월 '사이시옷'에서 최용호 작가를 초청해 진행된 북토크는 전국의 유일한 단관극장으로 올해 개관 86년을 맞은 광주극장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 관련 기획이었다. 북커버는 그림책에 실리지 않은 '특별한 삽화'를 작가가 선정해 제작했다.

마지막 비대면 릴레이 북토크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책과생활'에서 열린다. '모모는 철부지: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의 장상은 작가와 광주 대중음악을 지켜봐온 주광 DJ가 함께 하는 행사로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TV'를 통해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모모는 철부지' 한정판은 특히 북커버로 사용된 작가의 작품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도록 책 제목 등을 책날개에 감춘 디자인이 눈에 띈다.

한정판 도서는 27일부터 10월3일까지 판매되며 북커버 한정판 도서에 끼워진 '도서교환권'에 당첨되면 책방에서 판매되는 책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또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북토크 카드뉴스 QR코드를 찍어 작가에게 사전질문을 남기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면 책방에서 추첨을 통해 4-5명의 참가자에게 블라인드북을 제공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파종모종(010-9452-1606)에서 확인 가능.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양호 작가 작품이 실린 서정완 '골키퍼의 황혼'



최용호 작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 북커버

'봄맞이 가자' 김태오 시인을 만나는 시간

광주학콜로키움, 30일 광주문화재단...이동순 교수 발제

동요 '봄맞이 가자'로 유명한 설강 김태오 (1903-76)는 광주의 첫 현대시인이자 아동문학가다. 광주의 민족운동 핵심이기도 했던 그는 동요, 동화 외에도 외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문학에 진력했다.

김태오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제5회 광주학콜로키움이 오는 30일 오후 4시 광

주문화재단에서 열린다. 발제는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태오 시인은 1903년 전남 광주군 광주읍 금계리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많이 불리며 사랑받는 '동무들이 오너라'로 시작하는 '봄맞이 가자'는 그의 대표 작품이다.

김태오는 1919년 여름 '양파정'에서 소년단 조직을 시작으로 동아일보 등 일간지와 어린이 잡



김태오 시인

지 '어린이'와 '아이생활' 등에 동요, 동화, 동극 등을 발표했다. '설강 동요집' 외에도 시집 '초원'을 냈으며 연구서 '미학개론'을 펴냈다.

한편 이동순 교수는 '광주의 시인들', '광주 문학 100년', '광주전남의 숨은 작가들' 등을 발간했다. 30명 전화를 사전접수 중이다. 또한 '광주문화재단TV' 유튜브 생중계.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정용 작 '나타나다'

자연 속 '미술관'

'영산강 생태환경 조각전' 11월20일까지 승촌공원

'자연과 미술작품이 어우러진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공원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생태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

K-water영산강보관리단과 영산강문화관, 전남대 미술대학은 영산강문화관 주변 승촌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조각전을 진행한 다.

'영산강 생태환경 조각전-동존의 결' (11월20일까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대학교 LINC+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문화예술 융·복합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전남대 미술대학 교수진과 중국 유학생 작가 4명이 참여했다. 전시는 자연생태계의 근본원리인 생명의 지속적 순환과 상호의존이라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작가들은 예술적 실천을 통해 생명주의적 자연관의 회복을 촉구, 사회에 생태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박정용 교수는 인위적인 사물과 무생물까지도 자연의 생태원리를 확장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에 나온 '나타나다', '우리를 이루는 것들'은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사물들을 생태학적 조형의 주제로 인식하고 작품으로 전환한 조각들이다. 버려진 드럼통, 쓰고 버린 우산 등 기능을 다하고 폐기처분된 사물들이나 실물을 능가하는 조화(造化)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전남대에서 유학중인 중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하화 작가는 철과 아크릴을 이용한 작품 '그림'을, 설세걸 작가는 철과 그물을 소재로 한 작품 '일엽지추'를 전시하고 있다. 또 김세진 작가는 철과 종이간을 활용한 작품 '너에게 닿는 순간'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한편 영산강문화관은 승촌공원 일원에서 버려지는 병뚜껑을 이용한 리사이클 아트 체험(시민참여 공동 예술작품 제작)과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양한 색과 선 '무한에 대한 상상'

송유미 개인전, 10월6일까지 소암미술관

추상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송유미 작가 개인전이 소암미술관(광주시 남구 중앙로 83-1)에서 오는 10월6일까지 열린다.

'무한에 대한 상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소암미술관이 역량있는 지역 작가를 깊이있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초대전으로 송 작가는 무한에 대한 심오한 세계를 자유로운 드로잉으로 표현한 23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송 작가의 작품은 가는 선의 반복적인 드로잉 작업을 통해 화면에 끝없는 깊이를 구현한 작품으로 관람객의 무한한 상상을 자극한다. 화면은 때론 우주의 무한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세 입자가 무리지어 떠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양한 색감과 선으로 풀어낸 작품은 끊임없는 붓질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곡선들의 수많은 반복과 선들이 주는 율동감은 화면에 강한 에너지 를 부여한다. 또 직선, 사선, 곡선을 무한히 반복하며 나타나는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 끝이 없는 세계, 본질에 대한 예술가의 탐구정신을 보



'무한에 대한 상상'

여준다.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송 작가는 지금까지 10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무등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